

보도	2023.7.13.(목) 11:00	배포	2023.7.13.(목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	책임자	국 장	문형진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오충건	(02-3145-7450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상생 금융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험회사 현장 방문

I . 개 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.13.(목) 보험회사의 상생 보험상품 출시 및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한화생명 본사를 방문
 - 한화생명은 “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”, “상생친구 어린이보험” 출시 계획 및 취약계층 케어 프로그램 실행계획*을 발표하였으며,
 - * 가족돌봄청년 자립 지원,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성장 지원(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)
 - 금감원·한화생명 공동으로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*
 - * 월드비전,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후원금 전달
- 금감원장은 한화생명이 출시 예정인 2개 보험상품은 “따뜻한 금융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며
 -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,
 - 이러한 한화생명의 상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

행사 개요

- ☑ 일 시 : '23. 7. 13.(목) 11:00 ~ 11:25
- ☑ 장 소 : 63빌딩 별관 라벤더홀(4층)
- ☑ 참석자: (금 감 원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차수환 보험담당 부원장보
(한화생명)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
(복지단체)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,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등

II.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
-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
상생 보험상품 출시 및 취약계층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
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,
 -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임에도 의미 있는 상생 금융 방안을
마련해 준 한화생명에게 감사를 표하면서, 이 자리가 상생 발전의
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
- 상생 보험상품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결혼·
출산을 앞둔 부부들은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받게 되며,
 -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충분한
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
 - 또한, 영케어러(Young Carer) 등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
이들이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언급
- 아울러, 금융산업은 국민 및 국가경제와 떨어져 나홀로 성장
할 수 없기에
 -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회사들은 스스로만을 챙기기 보다
함께 상생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
 - 좋은 상생 금융상품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, 국민·산업에 대한
자금공급 노력 등을 통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 한다면, 미래에
더 큰 발전의 과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
- 끝으로,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
금감원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

※ (붙임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